기업들 올 하반기 3만명 더 뽑는다

포스코 1000명 추가·韓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지난해보다 9.4%↑…광주은행도 7급 40명 공채

국내 주요 기업들이 하반기에 대규모 인력채용에 나서 취업난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포스코가 하반기에만 1000여명을 추가 채용키로 해 주요 기업들의 채용인원이 3만여명을 웃돌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시행한다.

16일 포스코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포스코와 자회사 등이 1000명을 추가 채용해 올 한해 총 3500명을 뽑기로 했다. 하반기 투자 확대와 설비 신·증설 등을 고려한 조치다.

포스코는 올해 추가 채용하는 인원을 신규 투자 사업과 해외 프로젝트,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채용예정인원의 20%를 지방인재로 뽑는 채용목표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전형 단계마다 합격선을 넘는 지방대학 출신 응시자가 채용목표 규모에 못 미치면 합격 점수에서 만점의 10%를 뺀 점수에 드는 조건으로 합격 예정 인원의 10%까지 추가 선발키로 했다.

한은의 올해 정기채용 인원은 지난해보다 4명 늘어난 40명이 될 전망이며, 지방대학 출신자의 추가 선발이 이뤄지면 최대 44명까지 늘어난다.

한은은 또 올해부터 해외 전문인력 채용 규모를 10%에서 15%로 확대하고 해외 대학원 졸업(예정)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은은 9월6~13일 지원서 접수, 10월17일 필기고시, 11월 중·하순 면접 등을 거쳐 11월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상반기에 40명을 채용한 광주은행도 하반기 40여명 규모의 7급 행원 채용 공고를 내고 다음 달 3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원서는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를 통해 접수하며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2차에 걸친 면접 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주요기업들도 하반기 대규모 채용을 실시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하반기 주요 기업의 채용규모(경력포함)는 신입직원 2만6860명을 포함해 모두 2만9419명이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9.4% 증가한 것이다.

하반기에 뽑을 신입직원 가운데 정규직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1만5205명으로 전체 신입사원 채용 인력의 56.6%를 차지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 연령과 전공에 제한이 없으며 선발된 인력은 인턴과정을 거쳐 정규직 사원이 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벌써 '추석 상품권' 추석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16일 서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상품권 판매데스크 직원들이 추석 선물용으로 준비된 상품권들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휴대전화 부가서비스 3개월 넘도록 안쓰면

자동해지

앞으로 휴대전화 가입자가 부가서비스를 해지하지 않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안 쓰면 이통사는 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휴대전화에 가입할 때 대리점의 권유로 불필요한 부가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제때에 해지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3개월 연속 사용한 실적이 없는 부가서비스의 경우 8월 사용분부터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부가서비스는 사업자별로 SK텔레콤이 228종, KT가 112종, LG유플러스가 83종이다.

/연합뉴스

"50대 아직 죽지 않았다" 고용률 역대 최고

72%…21년만에 30대 추월

50대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분기 기준으로 처음 20%를 넘었다.

특히 50대 고용률은 역대 최고인 72%대까지 오르며 21년 만에 30대를 추월하면서 고용시장의 주력 연령층이 '3040'에서 '4050'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50대 고용률은 72.2%로 30대의 72.1%보다 0.1%포인트 높았다. 50대 고용률이 30대를 앞지른 것은 고용통계를 구직기간 4주 기준으로 작성한 1999년 이후 처음이다. 구직기간 1주 기준으로 따져보면 1989년 3분기(50대 74.9%, 30대 74.8%) 이후 근 21년 만이다.

10년 전 외환위기의 상처가 남아 있던 2000년 2분기(50대 67.7%, 30대 72.9%)에 비해 50대가 4.5%포인트나 올랐지만, 30대는 0.8%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스마트폰의 힘? 통신비 비중 사상 최대

월평균 14만2542원…가계 지출의 7.35%

가계소비 지출에서 통신비 비중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전국 가구(2인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가격 기준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93만8000원이며 통신서비스 지출은 14만2542원으로 통신서비스비 비중은 7.35%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를 조사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통신서비스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분기 기준으로 2006년 6.84%에서 2007년 7.08%, 2008년 7.23%, 2009년 7.24%, 올해 7.35%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아울러 2분기 통신서비스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늘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004년 1분기(10.4%) 이후 6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신서비스 지출의 증감률은 지난해 1분기 -2.8%에서 2분기 -0.8%, 3분기 -0.2% 등으로 감소폭을 줄이다 지난해 4분기에 1.9%를 기록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올해 들어 1분기 5.6%, 2분기 6.3%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통신서비스 지출이 감소한 기저효과 영향도 있지만 지난해 말 아이폰의 국내 출시를 계기로 스마트폰 가입이 빠르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과자도 치킨도 "구워야 제 맛"

웰빙 열풍의 영향으로 식품업계에서 튀기는 대신 구운 제품이 속속 출시돼 인기를 끌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크라운제과는 튀김 방식이 흔히 쓰이는 음식인 도넛을 오븐에 구워 케이크처럼 만든 도넛 케이크 '폴카링'을 선보였다. 여름철은 케이크류 비수기이지만 이 제품은 출시 첫 달에만 1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오리온도 최근 프리미엄 과자 브랜드인 '닥터유' 11번째 제품으로 '튀기지 않은 도넛'을 출시했고, 던킨도너츠는 구운 도넛 '카카오 링케익', '레몬 링케익', '호두 링케익' 등 3종을 선보였다.

예전에 출시된 구운 제품들이 최근 들어 매출이 급증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해태제과가 2001년 내놓은 '구운감자'는 올 들어 출시 이래 가장 높은 30%의 매출 신장률을 보였고, 2007년 출시한 '구운양파'의 매출도 올 들어 15%가량 늘었다.

대표적인 튀김 음식인 배달 치킨에도 굽네치킨, 핫썬치킨 등 구운 치킨 브랜드가 등장해 자리를 잡고 있다.

/연합뉴스

"사이비 햇살론·희망홀씨 대출 주의하세요"

정부가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해 출시한 신용대출 상품의 이름을 도용하는 수법으로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으려는 일부 금융업체들의 얌체 상술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금감원은 16일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희망홀씨와 유사한 이름을 내걸고 마치 고객에게 저렴한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눈속임한 업체 20여곳을 적발해 해당 광고에서 희망홀씨와 혼동을 일으킬 만한 문구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햇살론 캐피털'이라는 광고를 내걸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호객행위를 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생활정보지등에 '희망홀씨대출', '홀씨대출'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해당업체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40%가 넘는 고금리 상품만을 소개하고 있다. 대부업체가 희망홀씨 상품을 취급하지 못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은 '햇살론', '희망홀씨대출', '홀씨대출', '희망홀씨' 등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 독점적 사용권한을 갖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서민금융상품의 명칭을 도용하는 사례를 점검해 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부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상호를 등록하기 때문에 지자체에도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새 얼 굴

"소비자 중심 보증시스템 확립"

이 계 연 전남신보재단 이사장

전남도는 전남신용보증재단 4대 이사장에 신용보증재단 이사회가 추천한 이계연(50)씨를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임 이계연 이사장은 삼성화재 업무지원팀장, KCB(신용정보회사) 기획실장, 한화손해보험 상무 등을 역임한 전문 금융인 출신이다.

이 이사장은 "영세한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화보증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소비자 중심의 보증시스템 확립을 통해 고객의 편리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 임기는 이날부터 3년간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